

# 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부동산 꿈틀’

## 25개월 만에 풀려 ... 표준주택 공시지가도 7.68% 상승

남구가 최근 정부의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부산 지역은 남구를 포함해 부산진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4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은 청약 과열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난 12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남구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1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부동산 거래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후 각종 부동산 지표가 조정대상지역 기준에서 벗어났고 부동산 침체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을 면담해 규

제를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번 조정대역 해제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일반지역과 같이 분양계약 6개월 이후 가능해졌다. 또 대출 조건과 양도세 증가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는 당분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4일 발표한 2019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남구는 전년 대비 7.68%가 올랐다. 전국 평균은 9.13%, 부산은 평균 6.49%가 상승했다. 표준주택공시가격은 정부가 전국 1129채의 가격 변동률이 반영됐다.

## 민선7기 첫 구·동정설명회 주민참여 ‘후끈’

### 건의 172건 쏟아져 ... 남구 개청 이후 첫 야간설명회도 가져

남구의 2019년도 구정계획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민선7기 첫 구·동정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높은 참여로 후끈 달아올랐다. 설명회는 지난 1월 21일 대연1동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관내 17개 전 동을 순회하며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 모두 176건(동현안 22건, 주민건의 154건)의 건의가 쏟아졌다. 통상 100건 안팎이던

예년의 구·동정설명회에 비하면 민선7기에 거는 주민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76건 가운데 교통 관련 건의

(44)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하수(30), 건축재개발(26), 공원녹지(15), 복지(10), 재해재난(8), 정소(5) 순이었다. 이 중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의는 132건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주민의견을 정리해 향후 구정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 눈높이 행정과 소통을 강조하는 민선7기 구정 철학에 맞게 올해 구·동정설명회는 형식과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딱딱한 보고회 방식을 버리고 구청장이 주민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며 진행하는 주민토의 방식으로 바꿨다.

또 설명회에 앞서 가벼운 문화공연을 갖고 구청장이 구정 핵심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모습을 사전에 촬영해 스크린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여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낮에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주민들을 위해 대연3동, 용호2동, 감만2동, 문현3동에서 최초로 야간 설명회(저녁 7시~8시 30분)가 열렸다.

## 2018년도 지자체 혁신평가

### 남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남구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보무세 5000만원을 받게 됐다.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초기, 정부혁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20여명의 정부혁신평가단과 지역·성비를 고려해 구성된 200여명의 국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사회까지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및 혁신인프라 구성과 기관 대표사례 등 5개 항목 11개 지표로 이뤄졌다. ☎607-4015

## 상습 고액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 남구 특별기동팀 가동

남구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특별기동팀을 가동한다.

구청 세무과 직원들로 구성된 ‘더 More 징수기동팀’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기동팀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하고,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

판 영치 및 공매를 실시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집중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 지방세 15억원 가운데 절반인 7억5800만원 이상을 정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를 추진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일자리 연계 추진을 통한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607-4242

## 민방위교육도 이젠 ‘스마트시대’

### 남구, 부산 최초 전자통지·출결시스템 도입

남구는 올해부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휴대폰 알림톡으로 전송하고, 대원이 교육장 입장 시 바코드가 포함된 전자통지서를 단말기에 대면 자동 인식되는 점단시스템을 부산에서 처음 도입한다.

남구가 도입한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및 출결 시스템’은 기존 수작업으로 하던 민방위 통지서 대

면교부의 불편함이 해결되고 신속·정확한 민방위교육 출석체크가 가능해 집것으로 기대된다.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607-4801~19

을 받아 회복 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고 있어 아까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하나 다 알아 봐주고 도와줘 지금까지 온 거 같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선언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도 마쳐

남구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집은 선풍을 못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에는 모든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

하기로 했다. 남구는 23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구 어린이집 93곳의 통학 차량 113대에 이 장치의 설치를 2월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차확인 장치는 차량 운전자가 시동을 켜면 ‘어린이를 확인하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3분 이내에 차량 맨 뒤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경고음과 표시등이 해제된다.

또 남구는 지난 연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남구 전체 어린이집 144곳 가운데 이미 설치된 11곳을 제외한 133곳에 606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 스쿨존에 교통사고 예방 ‘지그재그차선’

### 대연초 등 관내 4개 초등학교 앞 ... 추후 확대 방침

신학기를 앞두고 대연초, 용호초, 대전초, 문현초 등 4개 초등학교 앞 통학로(스쿨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그재그차선’을 설치한다.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지그재그차선은 글자 그대로 차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해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 차선보다 폭이 좁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로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춰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2010년 서울 주요 교차로 10곳에 지그재그 차선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15% 가량 감소하면서 2014년 도로교통법을 고쳐 전국적으로 설치가 늘고 있

다. 남구는 지난 연말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대상으로 지그재그차선 설치장소 사전조사를 마치고 이번에 4곳을 설치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그재그차선 설치 후 사고 예방 효과성이 검증되면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607-4561

### ■ 남 구 정 사 용 설 명 서 ① 소통감사담당관

## ‘솔로몬 지혜’ 발휘하는 민원 컨트롤타워



소통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단체 청바지를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평화특구, 새로운 백년의 비전을 제시하며 출범한 민선7기 남구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지는 26개의 부서가 버팀목이 되어 구정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주민에게 소개하는 ‘남구청 사용설명서’를 연재합니다.

소통감사담당관(담당관 한광영)은 구민 중심의 소통과 공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다. 신생 부서이나 주민 소통을 최우선시 하는 민선 7기의 철학과 방향성이 녹아 있다. 소통감사담당관은 그 명칭에서

집착되듯 복잡한 이해관계가 겹쳐 있는 사안에 대해 갈등을 종재·조정하고 대화를 통해 고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대연비치 재건축 사태 등 사안이 엄중한 민원에 있어 주민과 구청의 중재자 역할과 컨트롤 타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은 “사안이 복잡적일수록 쉽게 처리되지 않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서는 고충민원이나 공공갈등을 총괄 조정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신고충처리팀(팀장 권오성)과 투병하고 신뢰 받는 정렬구정을 수행하는 감사팀(팀장 조상호)

### ○소통감사담당관 조직 구성

부서	연락처	주요업무
고충처리팀	607-4911~5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처리
감사팀	607-4051~5	종합감사, 공공감할, 계약감사
공보팀	607-4071~5	구청홍보, 부산남구 신문 발행, SNS관리

그리고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과 대안기능을 맡는 공보팀(팀장 안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 갈등의 종재 외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대변하고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있어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다면 소통감사담당관을 적극 이용하면 좋을 듯 하다.

특히 감사팀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남구의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제를 활성화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공보팀은 주민과 행정의 매신자 역할을 하는 부산남구신문 발행을 총괄하고 구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SNS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정문교 주무관(납세자보호관)

### ■ 구정 브리핑

#### CCTV 통합관제센터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음주운전 피의자를 검거했다. 지난 6일 새벽 2시 55분경 주택가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면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 포착됐다. 이를 목격한 관정섭 관제요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못골지구대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도주 행적을 전화로 알려줘 음주운전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 30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운동 동참

남구는 지난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과 함께 올해 30주년이 되는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반독재 운동으로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남구는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의 당위성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서명운동은 남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goo.gl/sfduPD)으로도 가능하다.



#### 남구청 내 ‘오륙도 휴 카페’ 확장 이전

남구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남구청 내 커피전문점 ‘오륙도 휴 카페’가 청사 1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지난 1월 17일 재개소한 휴 카페는 22㎡로 이전보다 3배 가량 넓어졌다. 수유실, 인터넷실, 북카페(인간서적 800여권)가 함께 있다. 관내 저소득 주민을 바리스타로 채용·교육하는 휴 카페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 기금으로 사용한다.



#### 분노수집·운반 청소 수수로 3월부터 소폭 인상

재래식화장실(분노수집·운반)과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가 오는 3월 1일부터 소폭 인상된다. (재래식화장실) 분노수집·운반 수수료는 10㎏당 350원 → 360원(10원 인상)으로 오르고 정화조 등(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0.75㎡이하)은 1만9,840원 → 2만1,100원(1,260원 인상), 초과요금은 0.1㎡당 1,470원 → 1,570원(100원 인상)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수료 인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데 그간 인건비, 유류비 등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635-1390

#### 설 전후 선거사범 단속 강화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중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 혹은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635-1390

80% 이내의 관내 60개월 미만 영유아, 출산부, 임신부가 대상이며 매월 1회 영양교육, 정기적 영양위원 요인평가를 받고 쌀, 감자, 당근, 감자콩, 달걀, 우유, 분유 등 보충

식품을 가정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남구보건소를 방문해 영양위원 요인 평가 후 대상자격을 정해진다. 문의 영양플러스상담실 ☎607-6454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임산부·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2월 1~12일까지 모집한다. 중위소득의